

1930년대 제주도 농업생산력 변동에 관한 연구

진관훈*

목 차

- I. 머리말
- II. 1930년대 제주도의 농업생산 조건
- III. 1930년대 제주도 농업생산력 변동 양태
- IV. 농업생산력 변동요인
- V. 맺음말

I. 머리말

八. 洪水旱魃豫防에는 森林水利第一이오 良田沃土增生産엔 灌溉施肥急先務며 改良種을 普及하면 事半功倍結果 많고 作業速進하는 데는 改良農具利用하며 害敵驅除豫防에는 昆蟲病理應用하고 資本 많기 希望하면 節儉貯蓄勵行하며 智識技術鍛鍊하고 學問實地調和하여 新天地의 光明下에 破天荒의 農夫되세

九. 西伯利亞저鐵道와 歐美航行저商船은 半島農夫所產物을 滿載輸出期待하네 浮華青年速히깨여 生産從事着手하고 蟄居閨婦惡첩고쳐 副業勉勵遊食말며 北間島와 西間島에 轉耕하는 저農夫들 一攫千金꿈을 깨여 農夫같은 農夫되세 士와 工과 商의業은 由此隆盛할 것이니 二十世紀形勢따라 世界的의 農夫되세 (金文準의 농부가 8, 9연¹⁾)

본 연구는 1930년대 제주도 농촌의 농업생산력 변동을 다룬 논문이다. 제주도의 농촌은 개항 이전 중앙정부의 통제적 지배하에서 자급자족적 생산형태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완만한 변동추이를 보여왔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1) 金文準(1893-1936)은 북제주군 조천출생으로 농부가는 1914년 12월 집필하여 1915년 조선총독부 농림학부 졸업기념 교지에 발표되었던 작품이다. 탐라문화연구소, 1995, **제주문학**, p.13.

다. 그러나 조선체제말에 이르러 중앙의 강력한 통제력이 완화된다고 외세에 의한 새로운 권력으로 그 중심축이 대체되면서 종전과는 다른 형태, 상이한 속도로 변화되어 가게 된다.

중앙통제력이 변화 즉 새로운 통제력의 출현은 속도 면에서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제주도의 농촌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데, 농촌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는 농업생산력 변동이 위치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의 주된 산업이었던 농업부문의 생산력 변동은 농촌사회, 제주도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동의 형태는 1930년대에 이르러 돌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개항이후 외적인 충격에 의해 점차적으로, 하지만 강력하게 이루어져왔던 변화의 징후가 1930년대에 와서 확연히 들어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민지시대 제주사회의 변동모습을 살펴봄에 있어 1930년대가 중요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생산력에 관한 분석은 우선 생산수단인 토지 즉 토지이용도의 변화, 생산도구인 농기구의 발달, 생산기술인 농법, 농업기술의 발달과 그 외에 생산주체인 농민의식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작부체계의 변천, 시비, 재배작물, 노동력 구조, 노동생산성 등의 변화추이도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30년대 제주도 농업생산력의 변동을 고찰하면 제주도의 농업생산력변화는 토지, 농기구, 노동력 등 생산수단의 발달이나 개량 등과 같은 측면의 변화보다는 주로 재배작물의 변화, 품종개량과 농업경영상의 측면에서 획기적 변화가 행하여졌고 부차적으로 비료사용, 농업기술의 보급 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제주도 농업생산력 변동을 다룸에 있어 주로 재배작물의 변화 즉 곡물중심의 작물재배에서 식민지 시장에서의 편입결과이기도 한 환금작물, 상품작물 재배로의 전환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기존 품종개량, 이들과 식민지 농업정책의 관련 등을 다루어 보려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II장에서 농업생산력 변동분석을 위한 제주도 농업의 기초조건을 다루었고, III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농업생산력 변동양상을 고찰하였으며, IV장에서는 앞장에서 고찰한 농업생산력의 변동요인을 서술하였다.

II. 1930년대 제주도의 농업생산조건

I. 토지와 토지이용

제주도의 경지면적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한지를 포함하여 49,519ha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경작지의 대부분은 밭농사가 행하여졌고 미개간지는 대략 35,000ha 정도로 주로 방목지로 이용되는 실정이었다.

〈표 1〉 제주도의 경지면적

(단위:ha)

년도	농가호수	논면적	밭면적	계	호당면적	휴한지
1913	37,621호	357	30,051	40,408	1.4	9,111

자료: 남인회, 1965, **제주농업의 백년**, p. 36.

〈표 2〉 읍면별 경지면적

1938년 현재 (단위:정보)

읍면명	토지대장등록경지							토지대장미등록경지					
	답			전				답	전				
	일모작	이모작	계	실경면적	휴한지	계	합계		일모작	실경면적	휴한지	계	합계
제주읍	489	75	564	67,805	45,869	113,674	114,238						
애월면	518	9	527	69,232	17,949	87,181	87,708						
한림면	1,538	34	1,573	85,894	27,265	25,159	24,733						
대정면	805		805	50,252	9,749	60,001	60,806						
안덕면	755	20	775	30,740	17,341	48,081	48,856						
중문면	1,590	1,282	2,872	60,673	3,481	64,244	67,116	16	2,455	2,455	2,471		
서귀면	460	849	1,309	34,677	11,875	46,552	47,861						
남원면	12	12	55,501	18,030	75,531	73,543	72	72	72				
표선면	15	15	38,540	21,520	70,060	70,075							
성산면	263	263	34,218	33,763	67,981	68,244							
구좌면	248	249	72,849	22,527	95,376	95,624	120	120	120				
조천면	37	37	36,835	24,645	61,480	61,517	4	4,083	4,087	4,087			
추자면	56	56	1,790	1,790	1,846								
계	6,786	2,270	9,056	647,096	254,014	903,110	912,260	27	6,877	20	6,897	6,924	

자료: 제주도청, 1937, **제주도세요람** 58.

〈표 2〉에서 알수 있듯이, 제주도는 밭면적이 절대적이었으며 약간의 논농사 지역에서도 주로 일모작이 행해지고 있었다. 다만 제주도의 대표적 논농사 지역인 중문면 강정, 법환 지역에서 이모작이 행하여졌다.

식민지시대에 경지면적의 변화는 거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개간 등을 통한 경작지의 확대와 반답 등을 통한 토지이용도의 변화 등은 일부 나타난다.²⁾

2) 반답의 대표적인 경우는 1907-1908년 대정군수 출신 蔡龜錫의 주도로 중문 천제연 물을 이용하여 중문 광배기 일대 5만평을 논으로 만들었고 이어 1923년 대포지역 너배기 일대 역시 논으로 만든 기록이 있다. (채구석 등에 의해 작성, **立式契約書**, 1914-1917년으로 추정) 또한 1930년경 白呂由가 일본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어리목에서 광령지역 너븐절에 이르는 10km의 시멘트수로를 완공하여 100여 가량의 땅을 논으로 만들었다. (고덕훈, 1990, **광명약사**, pp.121-123.)

제주도의 농촌은 해밭고도, 생엽과 같은 생산형태등 몇가지 기준에 의해 3개로 나눌수 있다. 즉 해안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이다. 각 지역별로 작부체계를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지역별 윤작체계표(1937년도 기준)

해안지대

유형별	제1년차		제2년차		제3년차	
	하작	동작	하작	동작	하작	동작
1	栗	麥	栗	麥	栗	麥
2	靑刈	麥	栗	休	綿	麥
3	綿	麥	栗	무명류	綿	麥
4	栗	休	綿	麥	栗	麥
5	綿	麥	고구마	麥	栗	豌豆
6	고구마	麥	大豆	麥	栗	무명류

중간지대

유형별	제1년차		제2년차		제3년차	
	하작	동작	하작	동작	하작	동작
1	栗	休	고구마	麥	麥	栗
2	陸稻	休	栗	休	大豆	休
3	蕎麥	休	陸稻	休	고구마	麥
4	休	麥	栗	무명류	休	麥
5	고구마	休	陸稻	休	大豆	休

산간지대

유형별	제1년차		제2년차		제3년차	
	하작	동작	하작	동작	하작	동작
1	陸稻	休	休	麥	大豆	休
2	栗	休	休	麥	栗	休
3	피	休	蕎麥	休	陸稻	休
4	감자	休	休	休	蕎麥	休

자료 : 삼서사, pp. 86-88.

<표 3>에서 알수 있듯이, 산간지대로 갈수록 휴경기간이 길어지며 농사경영 형태에 있어서도 해안지대는 타지역에 비해 다소 집약적이고 산간지대로 갈수록 조방적이었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조방적 농사경영 형태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재배작물 보면 1930년대 가장 특징적인 작물은 고구마와 옥지면이라 할 수 있다. 1910년대와 비교하여 볼 때 고구마와 옥지면이 윤작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훨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비료사용의 증가 등으로 휴한지가 줄어들어 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 노동력

〈표 4〉 제주도의 호수 및 인구수

년도	호수	인구수		
		남	녀	계
1913	39,867	93,331	95,591	188,922
1935	44,013	96,322	110,898	207,220

자료: 조인회, 전서서, pp. 34-41.

제주도의 인구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초현상이 특징이며 인구증가가 완만하게 나타난다. 다만 1930년대 제주도의 인구 특히 노동력과 관계가 깊은 청장년 남자의 인구변동은 일본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독일 제주도민의 숫자와 깊은 관련을 지닌다.

〈표 5〉 농가호수

년도별	호수			영농별 호수			
	전업	겸업	계	자작	자작겸소작	소작	피고용
1935	42,405	1,624	44,029	28,560	8,459	6,574	436
1936	42,301	1,845	44,146	27,730	8,675	6,965	776
1937	42,453	1,652	44,105	28,501	8,402	6,559	643
1938	42,247	1,771	44,018	28,272	7,514	7,409	723

자료: 제주도청, 전서서, pp. 88.

〈표 5〉에서 보면 제주도는 육지부에서 나타나는 대지주, 일본인 지주에로의 토지집중과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자작농의 비율이 크다. 이는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이 낮고 아울러 일인당 경작가능 면적이 한계가 있어 소작과 같은 생산형태는 경제적 가치가 약하였기 때문에 파악된다. 다만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주도의 대표적 벼농사 지역인 강정, 법환지역 혹은 1930년대 이후 반담을 통해 벼농사지대로 각광받던 광령지역인 경우 부재지주가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지부 농사지대와 비교하여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식민지시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소작쟁의와 같은 농민운동이 제주도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던 주된 요인이 되었다.

3. 주요작물과 생산력수준

1910년대의 주요재배작물은 미곡, 대맥, 소맥, 대두, 소두, 피, 조, 교맥, 고구마, 감자, 배추, 무, 오이 등이고 이외에 면화, 양잠, 양봉, 공예품 생산을 위한 대나무, 연초 등이 있었으며 이후 식민지 농업 정책에 따라 육지면이 보급, 확대되어 가고 이외에 1930년대에 와서 제충국, 박하 등과 같은 환금작물

이 재배되어 전량 수매되어 졌다. 고구마는 1910년대에도 재배가 이루어졌으나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많지 않다가 1930년대 이르러 제국주의 병참공급품의 하나인 전분의 생산으로 그 이용가치가 증대되었고 식량작물, 즉 구황작물로서의 가치증대와 함께 재배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6>은 1913년 주요재배작물의 경지면적과 생산량을 나타낸 표이다.

<표 6> 주요작물의 재배면적 및 수확량(1913년)

(단위:ha, 石)

작물종류	재배면적	10a 당 수확량	수확고	
곡류	粳米	335.8	0.93	3,131
	米	7.7	0.94	72
	陸稻	1,914.0	0.31	9,206
	大麥	18,150.4	1.64	298,373
	小麥	2,328.2	0.55	12,765
	裸麥	1,067.9	0.91	9,768
	계	21,556.5	321,169	
두류	大豆	1,654.9	0.39	6,397
	小豆	73.5	0.21	154
	기타 두류	73.5	0.21	154
	계	2,246.3	0.37	8,359
서류 및 소채류	고구마(甘藷)	599.8	308.5貫	1,850,143貫
	감자(馬鈴薯)	7.6	134.5	10,223
	무우	104.2	51.7	53,864
	배추	163.2	133.5	217,812
	오이	52.3	70.7	36,953
	계	927.1	2,168,995	
잡곡	조	15,259.5	1.35	206,087
	피	1,040.0	0.86	8,957
	기장(黍)	15.8	0.5	70
	蜀黍	1.5	0.53	8
	玉黍	1.5	0.53	8
	蕎麥	2,387.7	0.95	25,092
	계	18,765.7	240,516	

자료 : 관안회, 전거서, pp.36~40에서 재작성.

위 <표 6>에서 알수 있듯이 제주도의 농업은 곡류 특히 맥류, 조, 두류 등이 가장 많이 재배되었다. 자연조건의 영향으로 쌀농사는 전체의 2% 미만에 불과하였지만 쌀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로 인하여³⁾ 전체농사에 있어서 벼농사의 위치는 확고한 것이었다. 두류재배는 두류작물의 특성 즉 지력증진의 효

과가 있기 때문에 윤작체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대두는 소두에 비해 재배면적은 넓으나 상대적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작물에서 보면 1913년까지만 해도 고구마는 재배면적이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구마는 제주도 농업사의 제1차 변혁기라 할 수 있는 1930년대에 이르러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서류 및 채소류는 아직까지 자급자족적이었고 마지막으로 잡곡작물은 재배면적이 총경지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적었는데 그 이유는 작물의 수확기인 8월말 9월초에 제주도에 부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Ⅲ. 1930년대 제주도 농업생산력 변동양태

1. 재배작물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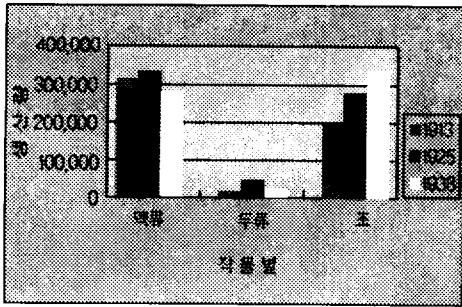
〈표 7〉 1930년대 주요작물의 재배현황과 생산량

작물명	1936년				1932년-1936년 5개년 평균			
	작부반별	수확고	수확고		작부반별	수확고	반당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도	807.7町反	8,905石	1,118合	33.54円	914.4町反	10,465石	1,152合	27.07円
육도	2,553.5	11,045	424	10.60	3,774.9	17,566	451	8.86
대맥	24,803.9	37,082	1,278	10.47	23,928.6	295,634	1,230	8.41
소맥	1,674.4	9,422	563	8.69	1,621.6	16,216	529	6.81
나맥	1,342.6	10,696	797	10.51	1,283.8	10,031	799	9.25
조	30,546.3	173,201	567	5.87	30,424.3	188,545	622	5.64
대두	6,041.0	22,105	363	4.78	6,012.0	18,091	301	3.56
고구마	431.6	10,129,371貫	234貫	18.72	3,829.8	9,047,753貫	236貫	19.76
교맥	5,258.7	17,987	342	3.42	5,196.9	26,289	506	5.15
완두	116.4	789	678	10.1	138.7	760	564	7.88
청완두	104.3	813,540근	780근	11.70	38.3	372,528근	1,096근	16.44
제충국	211.2	21,435관	10관	17.00	105.4	11,512관	12.5관	40.52
박하	106.5	1,654	3	24.18	61.2	1,866근	4근	34.76
면	2,736.1	2,842,803	67	10.92	2,474.2	1,991,010	83	11.66

자료: 삼천사, pp. 4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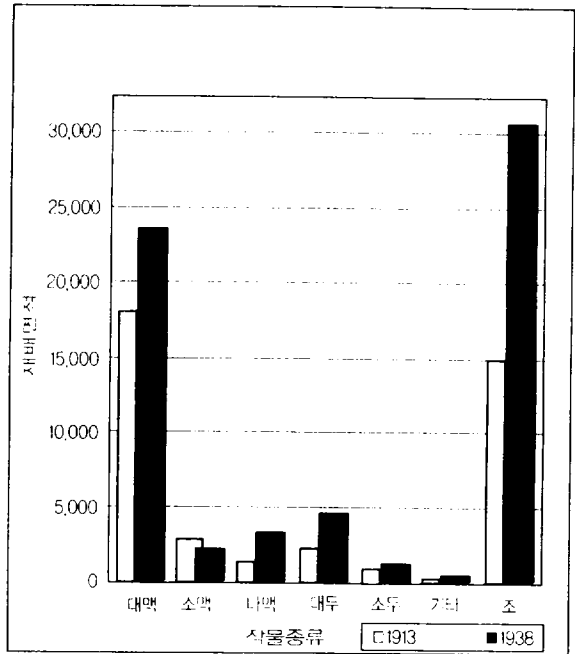
3) 제주도에서는 각종 경조사 특히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실 때 반드시 곤밭이라는 쌀밥을 올리는 풍습이 있다. 따라서 각 농가에서는 주식용이 아닌 제사용으로 일정량의 쌀을 확보해야했고 이를 위해 논외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쌀의 생산은 水畜이 아닌 경우 수리안전담에 陸稻재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쌀과 보리의 교환비율은 시대, 마을, 농사 풍흉정도에 따라 다양하나 육도인 경우 1:2, 수도인 경우 1:3인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극심한 흉년이 들어 보리, 조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그림 1〉 전작류별생산량변동



자료 : 〈표 6〉과 〈표 7〉에 의거 재작성

〈그림 2〉 작물별 재배면적 변동



자료 : 〈표 6〉과 〈표 7〉에 의거 재작성

〈표 6〉과 〈표 7〉 그리고 이를 그래프화한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1913년과 1930년대 주요작물의 재배현황과 생산량을 비교분석해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품작물 즉 고구마, 제충국, 박하, 청완두 등의 보급 및 확산을 들 수 있다. 또한 주곡작물 중심의 전작에서 탈피하여 의식 확보에 필요한 작물로 작물선택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보리의 재배면적, 생산량 변화율이 조, 콩 등의 변화율보다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1930년에 이르러 제주도 농가가 생존을 위한 식량확보 수준의 생산단계에서 벗어나 가계에 필요한 현금수입 증대를 위해 상품작물, 환금작물의 재배확대와 식량대체작물, 지력증진을 위한 두류 등과 같은 작물을 재배 확산하는 등 농업경영의 다각화 경향을 보여가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1930년대 주요작물의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단위면적당 현금수입이 가장 높은 제충국, 박하, 그리고 식량대체작물 겸 상품작물인 고구마 아울러 육지면, 양잠 등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작물들의 재배확산은 당시 제주도 농촌의 농가경영구조, 수입구조를 변화시

식량을 수입해 왔을 경우 이 비율은 축소되었다. 이처럼 쌀이 귀했던 탓에 노동력이 왕성한 청년 1명이 하루종일 노동하여 논 2평 정도를 만든다면 그는 만족할만한 작업 성취도를 누릴 수 있었다. 제주도의 벼농사 기술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일제시대 중반에 와서야 이양법이 보편화되는 등(강정마을회, 1996, **강정향토지**, p. 290.) 자연조건에 영향을 받아 자체적인 생산기술의 혁신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재래종 대신 우량품종을 보급하는 활동 등에 힘입어 생산량의 증가를 보인다.

켜 1930년대 제주도 농촌경제의 주요한 변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그러나 그 강도나 지속성 여부는 자료보완을 통해 입증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다만 상품작물의 도입과 보급확산이 당시 제주도 농업생산력 증가, 나아가서 농촌경제의 성장에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음 장에서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더 부언하면 1930년대 제주도의 농업생산력 변동을 주도했던 상품작물의 보급 및 재배장려는 주로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과 식민지 시장경제상황과의 관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지는데 농민들의 수용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당시 제주도 농민들은 상품작물의 재배참여에 있어 철저히 경제적 논리 즉 최대이윤추구의 논리에 의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⁴⁾ 또한 상품작물 대부분이 전매와 같은 확실한 판매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생산활동에 안정을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상품작물 도입과 재배확산

〈표 8〉 상품작물재배현황(1938년)

종별	작부면적	생산량	단위면적당수확량
옥지면	2,527.4ha	2,508,096근	99근
대마	16.3	2,152	13
莞草	6.7	3,659	55
참깨	177.4	397석	0.224
제충국	128.1	14,095	11
박하	47.6	6,434	14
落花生	3.5	81	2,314
豌豆	169.2	1,103	0.652
고구마	7,357정보	23,430,000관	318관

자료 : 성거서, pp. 44-50. 및 제주도청, 1939 **제주도세요람**, pp. 97-113에서 작성

〈표 8〉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1910년대 재배작물현황〈표 6〉과 비교하여 1930년대에 이르러 제주도의 농업은 곡물작물재배가 점차 줄어들고 옥지면, 곡구마, 제충국, 박하, 낙화생, 완두 등과 같은 상품작물이 주를 이루어 제주도의 농업생산형태가 이미 판매를 위한 생산형태로 전환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는 경제적 이윤추구의 동기에 따라 상품시장경제 혹은 식민지시장기구에 적극적으로 편입한 결

4) 이 논리는 이 논문작성의 주요자료가 일제식민지 시대에 작성된 관찬사적 자료인데서 연유하는 바 크다. 실제 농민들의 생산 활동에서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한 장려 혹은 권장 등에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실제로 옥지부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옥지면 강제재배정책 등에 대한 생산농민들의 재배저항이 있었던 사실을 비추어볼 때 제주도 농민의 재배저항 사례가 존재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증언자료에 의하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품작물 재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도움 말씀은 김 봉옥(제주도사연구가) 선생님이 해주셨다.

과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1930년대 제주도의 농업생산력 변동의 분석은 상업작물의 재배확산 즉 제주도 농민들의 재배작물선택의 변화에서부터 찾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1) 고구마

고구마는 제주도의 기후풍토가 고구마재배에 적합하였고 농가대용식량은 물론 주정, 전분의 원료로 일제에 의해 수매되었고 주요한 구황작물의 성격도 지닌 제주도 농민들에게 여러면에서 대단히 유리한 작물이었다. 고구마는 1910년도에도 재배가 이루어 졌으나 1930년대와서 급속한 재배확산이 이루어져 농가수입 구조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재배면적을 비교해보면 1913년에는 599.8ha이던 것이 1938년 7,357정보, 생산량은 1913년 1,850,143관(단위면적당 308.5貫)에서 1938년 23,430,000관(단위면적당 318관)로 늘어났다. 이에서 보면 고구마의 증산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가보다는 재배면적의 확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고구마의 재배가 이처럼 확산된 것은 고구마가 타 곡물류작물이나 잡곡작물처럼 수확기인 8월말 9월초에 제주도에 불어오는 태풍의 피해를 덜 입어 식량작물로서 기여하는 바가 크고 생산물의 절반은 절간고구마로 가공되어 도외로 반출되는 등 소비, 판매에 아주 유리한 작물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전분으로 가공하고난 잔여물은 축산사료로 쓰이거나 소량은 비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표 9〉 고구마년도별생산량과 주정원료공출상황

1937년작付反別	1938년 작부반별	1937년 수확고	1938년수확고	공출량
4,213町	7,332町	2,570,000貫	23,435,280貫	9,500,000貫

자료 : 전라남도제주도청, 1936, **제주도세일반**, p67에서 재작성

고구마의 증산을 위하여 반온상설치 면적을 확대시켜나가고 고구마지도포 및 우량품종전을 설치하는 등 고구마증산을 위해 일제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고구마 품종으로 충승 100호, 호국 등이 있었는데 이는 재래종보다 생산량이 많았고 품질이 우수했다. 특히 충승100호는 호국보다도 생산량이나 품질이 앞서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는 고구마의 증산을 위해 1937년부터 고구마 증산장려계획을 수립, 실시하였고 휴한지에 재배면적을 늘여나가고 노력하는데 이는 결국 주정원료인 전분공출을 늘려 군수물자확보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총생산의 40% 이상은 주정의 원료가 되는 절간고구마로 가공이 되어 공출되었고 나머지는 대체식량작물로 생고구마가 도내 소비되었다. 고구마의 식량대체는 제주도에 년중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주곡작물 즉 보리, 조, 콩 등의 피해에도 생존의 위협을 지켜주어 안정된 생산활동에 주력할수 있는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육지면

제주도의 면화재배기록은 약 4백50년전 서남부지역 1천여ha에 재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13년 이전에는 동양면이라는 재래면이 주로 재배되었으나 1905년 육지면(미국면)이 처음 도입되어 식민지 정책에 의해 육지면을 적극 보급시킨 결과 수량 및 품질면에서 육지면이 재래종보다 질적으로도 우수하였고 판매면에서도 유리하였기 때문에 점차 재배면적이 확대되었다. 주요품종으로는 '113-4호', '복포380호'가 대표적이었고 1933년 면화 10개년 생산계획에 의해 재배면적 확장과 농법의 개선에 따른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를 꾀하여 실제로 소득면에서 대두, 조 등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 결과 전통적 작부체계에서 대두, 조 등이 밀려나고 면작지역이 확대되어 갔으며 특히 면작재배면적이 확대가 가장 확연하였던 해안지역이 농업생산력 변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⁵⁾

〈표 10〉 육지면 생산연황

년도별	면작면적	생산량	단위당수확	작인수	판매고
1934	2,616.7町	2,141,567근	82근	19,469인	386,741근
1935	2,764.9	2,259,656근	82근	19,992인	647,677근
1936	2,736.1	1,842,803근	67근	20,046인	520,969근
1937	2,629.2	2,778,858근	105근	19,228인	634,751근
1938	2,527.4	2,508,096근	99근	18,516인	523,463근

자료: 삼개사, p.74.

육지면 증산에 대하여 일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예를 들면 1933년 한림면 893町9反, 애월면 99町7反步에 종자갱신을 시도하였고 1936년에는 대정, 남원, 중문, 안덕, 서귀 지역에 총 909町3反步, 1938년에는 제주, 구좌, 초천지역 594町步에 종자갱신을 시도하였다. 이외에도 증산을 위하여 육지면 공동경작포를 설치하였고 육지면 경작대회 개최, 개량농기구 및 금비의 공동구입 등을 적극 장려하였다. 이 결과 위 〈표 10〉에서 볼수 있듯이 1936년과 1937년을 비교해보면 단위당 수확량과 총수확량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양잠

양잠은 자급용으로 행하여 지던 작물이었는데 생사공장을 설립하는 등 일제의 농업정책에 의해 생산이 적극장려되어 농가부수입에 크게 기여하였다. 1913년 생산현황은 〈표 11〉과 같다.

5) 해안지역의 농업생산력변동은 육지면과 같은 상품작물의 재배와 아울러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상승으로 인한 해안지역마을의 부의 증가에서도 찾아야 할것이다.

〈표 11〉 잠업현황(1913년)

상전면적	사육호수			掃立枚數			생산량	
	춘잠	하잠	계	춘잠	하잠	계	製絲戶數	생산량
13.97ha	192호	12호	204호	105매	6매	111매	160호	10,650관

자료 : 남인회, 전계서, p.38.

일제는 1924년 산잠 백만석계획을 수립하여 장려해 나가다가 1930년대 후반에 와서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의욕이 상실되자 다시 1932년에 와서 잠업년차계획을 수립하여 잠업을 다시 장려하면서 이번에는 농업의 다각적 경영에 이바지하고 효율적 농가부산물처리, 농작물방풍효과 등 건전한 재배의도를 유발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932년부터 1936년까지 식잠계획, 잠종소립계획 등을 수립, 실시하였고 靑洲大豆를 적극 재배장려하여 자급비료로 시비하게 함으로서 桑葉증식에 이바지하는 등 잠업합성화에 힘썼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별농가들의 雉蠶사육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사육기술보급을 위해 아잠공동사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산과 판매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림, 남원, 서귀, 성산 4개지역에 공동판매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표 12〉 공동판매 현황

년도별	설치수	판매수량			판매금액		
		춘잠	하잠	계	춘잠	하잠	계
1932	3	14석	182석	196석	124円	4,260円	4,384
1933	4	354	150	504	11,217	2,907	14,124
1934	4	23	4	27	255	42	297
1935	4	66	104	170	1,249	2,716	3,965
1936	4	236	81	317	5,625	1,767	7,392

자료 : 제주도청, 전계서, pp.113-116. 및 전라남도제주도청, 전계서, pp.77-78.

〈표 13〉 양잠현황(1938년)

계절별	사육호수	잠종소립매수	생산량	생산량
춘	1,637호	814매	18,697석	
하	2,201	1,072	23,840	
계	3,838	1,886	42,537	3,949관

자료 : 〈표 12〉와 같음.

1913년 잠업현황 〈표 11〉와 1938년 잠업현황 〈표 13〉을 비교해 보면 사육호수나 생산량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수입 역시 제주도 농가의 수입원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산력의 증가는 생산기술이나 품종개량 등과 같은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확실한 현금수입원이라는 생산동기가 작용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생산참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제충국

제충국은 꽃을 수확 건조시켜 살충제의 원료로 쓰이는 작물로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전작물이며 휴한지를 이용하여 재배할 수 있고 성장환경이 제주도 기후에 적합하다는 재배장점이 있다. 이러한 조건과 일제의 군수물자 확보라는 필요와 맞물려 제충국재배 조합이 설치되는 등 재배가 장려되었다.

제주도에서는 1930년대 일제에 의해 전량 계약재배되었고 최저가격(관당 1원40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1938년경에 이르러서는 재배면적이 398ha에 이를 정도로 재배가 확산되었다. 反當 생화 수확량은 10貫정도이고 10a당 50원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정도여서 당시 공무원 월급여 20원 정도에 비하여 볼 때 비교적 고소득 작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4〉 제충국 판매상황표(1938년)

등급	판매수량	단가	판매금액
일등	1,585.170	516円	8,183.85円
이등	3,590.330	506円	18,195.75円
삼등	6,173.490	496円	30,699.86円
등외일등	2,409.880	486円	2,718.39円
등외이등	304.320	476円	1,446.87円
계	14,063.190		70,244.72円

자료 : 제주도청, 전제서, pp.104-105 및 전라남도제주도청, 전제서, pp.72-73.

제충국의 지속적인 생산증대를 위하여 1931년 우면 서호리, 신좌면 조천리, 제주공립농업학교 등에 시작지면적을 확보하고 새로운 품종을 시험재배하기도 하였다. 제충국 재배의 역사는 1952년 일본에 7만5천kg을 수출하여 그 대금으로 기계를 도입하는 등⁶⁾ 1960년 이전까지 계속되다가 이후 새로운 화학성분 살충제의 대량보급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5) 薄荷

박하는 1938년 대관광영회사와 전매계약으로 재배되어졌던 작물로 농가부업으로 농가1호당 1反步

6) 제주도, 1982, 제주도지, p.94.

이내 재배하기 적합한 작물이었다. 1938년 총 47.6ha에 재배되었고 생산량은 6,434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4근이었다. 1938년 이후 재배계획 목표를 보면 재배면적이 총 600㏊이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7근, 수량 42,000근 금액 168,000원으로 나타났다. 박하재배장려 계획을 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연도별 재배장려 계획

총보급면적	연도별 계획면적				
	1936	1937	1938	1939	1940
600㏊	40㏊	80	120	160	200

자료: 제주도경. 선거서, pp.105-106.

(6) 청완두

청완두는 1927년 한림면에 재래완두를 가공하는 죽중공장이 생긴 이래로 1931년 아라스카종이 도입, 보급되면서 1938년 현재 재래종 6할, 아라스카종 4할 정도가 재배되고 있다.

<표 16> 청완두생산 및 판매상황

년도별	작부면적	반당수확고	총수확고	공동판매고	판매가격
1931	209反	1,200근	246,000근	243,750근	3,231
1932	152	1,100	167,200	165,785	2,581
1933	148	1,200	177,600	174,618	2,568
1934	197	1,100	216,700	215,403	3,231
1935	375	1,300	487,500	474,743	7,108
1936	1,043	780	813,543	805,743	12,086

년도별	작부면적	품종별		생완두판매고	단가	금액
		아라스카	재래종			
1937	1,410反	818反	592反	547,300근	1.50원	8,210원
1938	1,140	551	589	422,098	1.50	6,332

자료: 선거서, pp.102-103 및 전라남도제주도경. 선거서, pp.70-71.

2. 신품종의 보급

1) 稻

제주도의 벼농사는 지형적인 특성과 수리관개시설의 미비로 수도재배는 1939년 기준 786.6ha에 불과하였고 육도의 재배면적은 이보다 많은 2,442ha 정도였다. 재배면적의 협소뿐만 아니라 농업기술

에 있어서도 일제시대 중반에 와서야 이양법이 보편화되는 등 제주도 농업전체에 있어서 벼농사의 비중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식량작물로서 쌀이 가지는 정서적, 상징적 특성과 식민지농업정책 차원에서의 생산증가 노력의 영향으로 1930년대 제주도에서도 약간의 생산량증가가 이루어졌다. 즉 재배면적은 거의 변함이 없이 유지되었지만 품종개량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수도인 경우 1924년 125kg, 1929년 180kg, 1935년에 172kg으로 증감을 보였다. 수도의 품종개량은 대추벼, 덕부지등과 같은 재래종에서 다마금, 은방주 등 우량품종으로 대체되었다.⁷⁾ 각 품종별 재배면적은 <표 17>과 같다.

<표 17> 품종별 재배면적

품종별	多摩錦	銀坊主	기타
재배면적	3,097反	1,352	3,417

자료 : 상계서, p.60.

제주도의 벼농사는 수리관개시설의 악조건으로 수도재배는 1939년 기준 786.6ha에 불과하였고 육도의 재배면적은 이보다 많은 2,442ha 정도였다. 육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재래종보다 생산성이 높고 병해충에 강한 旱不知, 羽二重 등과 같은 품종을 보급하였다. 그러나 수도에 비해 육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품종재배면적이 90ha 정도로 재래종 특히 흑도와 같은 품종의 재배면적에 비해 협소한 것이었다. 흑도의 재배면적은 1929년 3972ha, 1935년 4138ha로 증가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수도의 절반수준인 70kg 정도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외에도 浦三, 熊本1호 등도 시험재배하여 신품종보급에 힘썼다고 보아진다. 이 결과 <표 18>과 같은 생산량 변화를 보였다.

<표 18> 미국작물의 재배면적과 수확량현황

년도별	곡물종류	재배면적	10a당 수확량	수확고
1913	粳米	335.8ha	0.93石	3,131石
	米	7.7	0.94	72
	陸稻	1,914.0	0.31	6,003
	계	2,257.5	9,206	
1938	粳米	783.9	1,329	10,418
	米	2.7	0.593	16
	陸稻	2,442	0.609	14,871
	계	3,229	25,305	

자료 : 상계서, pp.60-61 및 농민회, 전계서, pp.33-40 및 제주도청, 전계서, p.93 및 고영기, 1996, **제주도의 벼농사**, 고대석사학위논문, pp. 35-40

7) 이 품종들은 1912년에 설치된 전라남도 종묘장 제주지장에서 현지적용 실험을 거쳐 각 농가에 보급된 것이다.(고영기, 1997, **제주도의 벼농사**, 고대석사학위논문, p.35.에서 재인용)

위 <표 18>에서 보면 재배면적의 증가비율에 비해 수확고 증가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생산량증가가 재배면적의 확장, 농사기술의 개선, 비료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강화 등에 기인하기 보다는 품종개량 즉 병충해에 강하고 성장조건이 적합하여 생산량이 더 많은 품종으로의 개량사업에 기인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 수도의 경우이고 육도인 경우 품종개량의 효과를 그다지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1930년대 후반에 가면 전반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육지로 부터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생산활동의 축소로 보인다.

2) 전작물

제주도의 농업은 농업지대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전작지대(혹은 인정식의 구분⁸⁾에 의하면 도서지대로 분류된다. 제주도는 밭작물이 중심을 이루었고 이중에서도 특히 맥류작물은 주요식량작물로서 생존의 가치를 지녔던 만큼 생산력의 증진과 안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제도 1931년 전작개량 12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력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품종개량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로 보리, 조, 콩 등의 밭작물에 집중적으로 개량품종을 보급하여 우량품종으로의 품종개량에 힘썼던 것으로 보인다.

<표 19> 품종보급 현황

곡물	년도별	보급면적	보급종자량	경작자수	종자명
麥	1936	476.0反	209,260石	2,801	대맥:倍取下 소맥:江島神力나맥:竹
	1937	419.5	183,875	2,755	
粟	1936	8,603	51,618	3,083	强突粒, 苡味實
	1937	11,241	67,446	4,971	
大豆	1936	116.9	58,450	1,343	秋出, 赤穀, 長端
	1937	152.0	76,000	1,009	

자료 : 제주도청, 전계서, p.95.

일제는 식민농업정책에 의거 품종개량 뿐 아니라 생산력증대를 위해 각 작물별로 지도포를 설치운영하였고 지도포설치부락에는 전작개량경작조합을 조직하여 우량종보급의 효율화, 농사기술개선, 개량농기구, 금비공동구입 및 보급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농업생산력이 증대하였는지, 증대하였으면 얼마나 증대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결론내리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나타난 자료의 대부분이 식민지배의 기본특성인 조직화, 선전 등의 의도가 내재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정책시행이 농민들의 실제생산활동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여기에서

8) 인정식, 1940, 조선의 농업지대, 생활사, p.73.

알 수 있는 점은 식민지농업정책의 초점이 생산량증대에 있다는 것이다. 전작류의 재배면적과 생산력의 변동추이를 보면 <표20>과 같다.

<표 20> 전작류재배연황 및 생산량변동

년도별	작물종류	재배면적	10a 당 수확량	생산량
1913	대맥	18,150.4 ha	1.64 石	298,373 石
	소맥	2,328.2	0.55	12,765
	나맥	1,067.9	0.91	9,768
	맥류소계	21,556.5	321,169	
	대두	1,654.9	0.39	6,397
	소두	517.9	0.35	1,804
	기타	73.5	0.21	154
	두류소계	2,246.3	0.37	8,359
	조	15,259.5	1.35	206,087
1938	대맥	22,722.3	1.607	242,621
	소맥	2,180.1	0.312	6,796
	나맥	3,078.0	0.976	30,048
	맥류소계	27,980.4	0.999	279,465
	대두	4,697.2	0.384	18,020
	소두	921.3	0.317	2,923
	낙화생	3.5	2,314	81
	적두	487.0	0.310	1,512
	완두	169.2	0.652	1,103
	두류소계	6,280.2	0.376	23,639
	조	30,417.0	1.119	340,481

자료 : 남인회, 전거서, pp.33-46 및 제주도청, 전거서, pp.89-109 및 전라남도제주도청, 전거서, pp.60-76 및 조선 총독부, 1929, 생활상태조사 (2), 제주도, pp.41-46.

<표 20>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30년대에 들어 곡류작물 중에서도 주곡작물 즉 맥류의 생산력이 두류나 조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30년대 제주도내 주곡소비량이 일인당 쌀, 보리 합쳐서 일인당 1석4두로서 1930년대에 와서 맥류생산량 279,465석이었고 당시 도일제주도민들의 송금액 증가로 도내 쌀소비의 증가, 이를 위한 쌀반입량 증가등으로 점차적으로 식량조달의 안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작물재배 형태가 주곡중심에서 탈피하여 윤작체계에 필수적인 두류작물과 식량작물에 비해 다중적 가치를 지닌 작물로 작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에서 부언할 사항은 1930년대

9) 1930년대 제주도가 육지부의 농가에 비해서 현금보유량이 많은 이유는 도일노동자의 송금증가, (구체적 액수는 논문의 뒷부분에 제시함) 1930년대 각종 현금, 상품작물의 재배증가로 일본과의 교역증가에 의한 수산물의 경제적 가치 증대 및 수출로

에 와서 제주도의 농촌경제는 외부 특히 일본과의 식민지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도일제 주인들의 송금으로 농가의 현금보유량이 육지부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¹⁰⁾ 상당한 양의 미곡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¹¹⁾ 바로 이 때문에 식량작물 중심의 작물재배에서 탈피하여 의식에 필요한 작물, 현금 수입원이 되는 작물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3. 금비사용장려와 개량농기구 보급

제주에 온 한 일본인에 의하면 '제주도 경종농업의 양식은 매우 조방해서 파종과 수확을 행하는 것 뿐으로 정지, 중경, 시비 등이 행해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이러기 때문에 지미의 감도가 심하여 토지는 1년 경작한 후 10년을 휴경한다.'¹²⁾ 고 서술하였다. 이는 제주도의 전통적 농법은 시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 주로 자연적 지력에 의존하는 약탈적 생산수준에서 계속되어 왔다는 일제의 지배적 인식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농업정책은 농업개량, 농촌개량의 차원에서 퇴비, 녹비생산에 주력하였다. 이 당시 육지부에서는 금비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제주도의 금비사용은 농업형태가 전작중심이어서 투자가치가 약하였고 전통적 농업방식에 있어서 금비사용에 의한 생산량 증대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무엇보다도 금비 구입비용이 농가에는 큰 부담이었던 탓이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한 금비의 공급이 지속적이고 확대되어 지면서 점차 금비사용이 증가하여 간다. 이 증거는 1930년 이후 도내 수입품목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금비사용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금비공동구입 등과 같은 활동이 홍보적 차원에서 그치고 실제 농업생산활동에 있어서는 녹비나 전통적인 퇴비생산에 주력하였다. 녹비생산에 대표적 작물이 靑洲大豆¹³⁾ 인데 일제는 1931년 시험재배후 이 작물의 재배를 보급, 장려하였다.

인한 현금유입, 산간지대에서는 임산물의 수출로 인한 부수입원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한 현상 때문이라고 하겠다.

10) 1933년 도내 쌀수입량은 9천2백74석으로 당시 도내생산량 2만4천8백10석(이중 수도는 1만2백34석)을 합치면 3만6천44석으로 제주도내인구 20만명 여기에서 20~25%정도의 도일자수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쌀소비형태를 취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로 1930-1934년 전국평균 쌀소비량은 0.447석이었다.

11) 제주우당도서관편, 전체서, p.57.

12) 이 작물은 녹비로 도내에서 소비되기도 하였으나 도외 농가로 수출되어 각 농가에서 상품작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외로의 수출이 막히자 식용으로 사용하던 등 도내소비로 전환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재배가 소멸해가고 말았다.(김봉옥 선생님의 도움말씀에 의거, 작성)

〈표 21〉 녹비재배계획 및 실적

년도	종류	계획반별	실시반별	실 적	
				녹비반별	반당수량
1931	청예대두	39,534반	39,534반	39,534反	361反
1932		39,727	39,727	39,727	469
1933		41,043	41,043	41,043	472
1934		42,243	42,243	42,243	424
1935		43,643	43,643	43,643	432
1936		43,600	43,600	43,600	428

자료: 전라남도거주도청, 전거서, p.79 및 제주도청, 전거서, pp.114-115.

제주도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퇴비(주로 돈사경 변소의 부산물)를 맥작 등 전작에 사용하고 있었고 일제시대에 와서 톱, 감태, 멀치 썩은 것 등이 해조류비료에 대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재래식 돈사의 부산물, 즉 똥거름이라는 堆肥이다. 이를 배경으로 일제는 〈표 22〉와 같이 지력증진, 생산력 증대를 위해 개량퇴비증산계획을 수립, 실시하였다.

〈표 22〉 퇴비증산계획 및 실적

년도별	계획					실적				
	리수	농가 호수	제조량			리수	농가 호수	제조량		
			반당	일호당	총량			반당	일호당	총량
1934	34	10,254	180관	2,327관	23,861,058관	34	10,231	127관	1,480관	15,141,880관
1935	36	9,927	180	2,421	24,033,267	36	10,380	134	1,504	15,611,520
1936	33	8,077	180	2,591	20,927,507	33	8,057	142	1,583	12,754,231
1937	32	7,408	180	2,900	21,483,300					
1938	32	6,515	180	5,350	21,836,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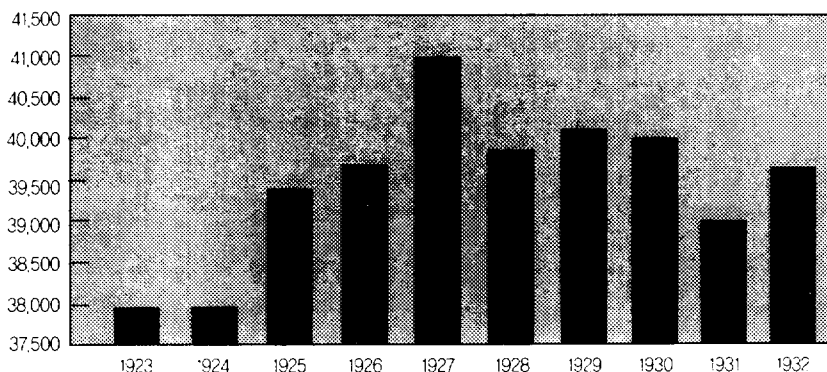
자료: 〈표 21〉과 같음.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일제에 의한 녹비 및 퇴비 증산 계획과 실적이다. 그러나 시비가 농업생산력 증대에 미친 직접적효과를 추출해 내는 것은 어렵다. 그 이유는 이용가능자료들에서 금비, 녹비, 퇴비 등의 시비효과를 변별해내는 것도 불가능하거나와 1930년대 제주도 농업생산력 증대의 원인이 작물 재배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시비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분적이었고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기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적으로 말해서 영향이 미미하다. 그 이유는 개량농기구가 제주도 농업의 자연적 특성에 적합하지 않아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동력농기구 등은 고가인 탓으로 일반에게 보급되는 것은 무리였다. 다만 어떤 기록에 의하면 1930년대 개량농구가 등장하였는데 타 개량농기구

가 제주도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비효율적이었던데 반해 이 농구는 보습의 좌우회전이 가능한 쟁기로서 손잡이 부근에 보습의 장치를 바꿀수 있는 장치가 있어 골을 탄다거나 같은 방향으로만 흙을 엮을 때 재래식 쟁기보다 쉬웠고 소 두 마리가 끄는 '겨리' 이상의 성능을 가져 일반농가의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쟁기는 모두 이때부터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개량농구 역시 농업생산력의 변화를 유도할만큼 획기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농기구의 변화보다는 축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노동투입의 변화, 노동능률, 효율성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력농기구 보급이 없었던 시대에 있어서 말, 소에 의한 축력이용은 농사에 있어 절대적이었다. 특히 제주도와 같이 밭에 돌이 많고 경사가 심한 지형에 경작지가 존재할 경우 축력의 의존도는 농사자체의 존재문제를 좌우할 정도로 증대한 것이었다. 또한 개간등과 같은 토지확충사업에도 축력이 절대적이었음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축력의 소유정도는 농가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제주도는 축산 전업 농가가 아니어도 일정수 이상의 소나 말을 보유하여 농사에 이용하였다. 1913년 기준으로 도내 사육우수는 23,877두였고 말은 11,953필이었다.

〈그림 3〉 년도별 축우수변동



〈표 23〉 축우분포 및 경지노력과의 관계(1936년)

읍면명	농가 百戶			축우백두대 경지면적
	경지면적	축우호수	牧牛수	
제주읍	159町	39	20	348
애월읍	161	41	36	234
한림면	162	40	27	239
대정면	215	52	45	216
안덕면	243	59	46	189
중문면	292	61	58	244
서귀면	170	53	70	99
남원면	434	53	66	327

1930년대 제주도 농업생산력 변동에 관한 연구

표선면	456	65	63	163	380
성산면	273	48	45	112	209
구좌면	214	63	39	102	349
조천면	193	32	35	98	209
추자면	31	20	5	21	146

자료 : (그림 3)과 같음 및 제주우당도서관편, 1995, **제주도의 지리적 연구**, pp.49-54.

〈표 24〉 마필증감현황

1913년	1916	1920	1921	1923	1925	1927	1928
11,953필	13,759	16,055	18,507	13,939	16,163	20,67	20,281

자료 : 삼거사, pp.49-54.

〈표 23〉에서 볼 때 농가 백호당 축우수는 90두 정도이며 경지면적은 229町 정도이다. 1938년 소는 사육농가 19,344호이었고 축우수는 35,329두이고 말은 10,116호, 21,409필이다. 〈표 24〉는 연도별 마필 증감현황으로 말 역시 제주도의 전통적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고 마필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축력 즉 사육두수의 변동으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변화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소나 말인 경우 농업에 이용되는 경우와 함께 판매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 준다.

IV장 농업생산력 변동요인

생산력이란 “노동주체인 인간이 생산수단을 갖고 자연에 작용하여 자연 및 인간 자체를 변혁시키는 능동적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생산력은 $f = (L, T, P, M, S, E)$ 이라고 할수 있다 (L:노동력의 숙련도, T:노동수단, P:생산관계 혹은 기술수준, M:원료, 품종, 토지의 비옥도, 수리사업, 비료, 자연적 조건을 극복하는 농법, S:과학기술, E:환경). 따라서 농업생산력은 농기구, 품종, 수리시설, 비료, 농법, 자연적 조건, 생산관계(기술수준)등의 총합적 결합에서 발생된다고 보아진다. 이외에 제도, 정책, 재산권과 같은 생산외적 요소도 생산자인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30년대의 제주도의 농업생산력 변동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상품작물의 도입과 확산에 기인한 바 크다.

다음은 농민들의 작물재배 체계가 어떤 이유로 변화하였으며 상품작물의 도입 이외에 농업생산력 변동의 요소는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1. 외부와의 교역확대: 식민지시장기구로의 편입

개항 이전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에 의해 자율적 생산활동을 제약받았고 각 산업 분야의 생산력 수준도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통제력 이완과 함께 내면적이고 잠재적이던 생산욕구가 서서히 분출되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물론 식민지권력이라는 새로운 통제력이 작용하게 되지만 경제적 의미에서 종전과는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역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농촌은 개항과 함께 주로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수산물을 주로하는 일본과의 교역증대에서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표 25〉 식민시대 초기 이입출상황

〈이입상황〉

품명\년도	1911		1912		1913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백미	169석	3,377円	1,549	30,980円	1,853	37,894円
碎米					2,054	29,350
粟					1,044	9,919
麥粉	2,675근	214			197,262	9,919
素	2,588	440	12,694	2,158	40,153	4,819
백목면	1,557疋	2,180	3,429	4,800	5,750	8,050
마포	5,971	10,150			6,538	11,114
청주	95	4,480	89	4,200	259	12,052
맥주	210	504			848	1,969
醬油	17석	592	28	990	43	1,505
미증	37관	186			51	256
연초		4,906		2,400		14,776
사탕	14,417근	1,720	41,667	5,000	90,500	10,860
금물		1,552				2,791
陶器		985				1,860
燐寸	129묘	517	501	2,040	692	2,768
馬尾	257근	180			717	780
石油	81	2,916	352			
잡화		20,976				57,703
계		55,685				214,248

<이출상황>

품명\년도	1911		1912		1913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생어	873,000	3,532	955,000	3,820	113,000	4,520
천초	33,200	1,826	44,260	2,225	80,363	4,420
片脯			700	350	6,560	3,280
구곡	1,904관	950	1,328	660	6,816	3,409
筍子	1,800	900	2,871	1,436	3,000	1,500
염어	2,308근	600	32,927	9,015	23,564	6,126
계란	353,900	3,431	515,450	5,125	1,071,200	10,758
栗	3,65석	18,175				
馬皮	80	110	125	200	215	300
月梳	116,333	700	132,833	785	124,666	808
우피	1,260	6,800	1,120	5,600	20,265	6,750

자료 : 조선총독부편, 1910, 한국수산지 제3집, 제주도, p.19. 및 조선총독부, 생활실태조사, 72, 제주도, pp.88-89.

*공란은 자료가 부족으로 인하여 파악하지 못한 것임.

<표 25>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처럼 1910년대 제주도의 이출입구조는 주로 해산물과 수공업품 등 1차상품을 이출하고 쌀을 비롯하여 면, 포, 잡화 등을 수입한다. 1910년까지만 해도 일본과의 직교역이 활발하지 못하였고 연안무역 역시도 종래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의 이출입 상황을 보면 제주도의 생산물구조가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6> 1935년 이출입상황

<이출상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말	27,747엔	소	119,550	대백	45,483	소맥	1,407
대두	5,626	조	205,266	석화채	27,321	화포	59,082
은행초	1,745	실면	86,064	옥도	9,776	염화가리	5,280
우글	405	우피	30,728	계란	27,242	고구마	18,408
조선관물	11,550	봉밀	9,294	면포	2,421	마포	2,955
제중국	24,280	박하	2,770	잡조	6,000	명포	1,224
연자등	16,137	포	29,590	흑동	4,392	경	52,500

<이입상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잡화	149,880	목재가구	5,689	목재	24,770	비료	66,863
도량기기	1,460	시계	3,925	자동차	20,134	자전거	10,102
도자기	9,049	금속제품	26,430	석탄	145	석회	26,940

호도화	59,074	어구류	36,860	내지마포	450	조선마포	87,891
조선초포	19,670	모직물	10,058	양복지	6,611	조선목면	59,604
광목	56,670	내지목면	28,529	인조건	4,726	모사	351
사면	6,795	염료	3,320	약품	15,954	아마자유	14
채자유	2,563	휘발유	51,132	석유	76,185	기계유	8,332
연초	4,238	과자	8,936	사탕	56,546	청량음료	2,983
지나주	182	포도주	564	맥주	4,026	소주	33,452
청주	48,572	양주	505	식초	2,628	밥	825
배	2,035	감귤류	1,523	명태	850	명태어란	244
염어	155	김	1,120	곤포	477	소금	86,577
차	1,105	소맥분	143,282	片粟澱粉	3,503	조	16,663
대두	3,196	소두	1,664	보리	2,220	쌀	242,062
생채	1,673	건채	124	양지	23,599	일본지	1,725

자료 : 제주도청. 전계서, pp.140-145.

〈표 26〉에 나타난 1935년 이출품목을 보면 마, 우, 대맥소맥, 대두, 조 등과 같은 농산물과 해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고 1910년에 비해 새롭게 나타난 품목은 봉밀, 제충국, 박하, 면포, 고구마 등 1930년대에 활발히 재배되었던 상품작물들이었다. 1935년 이입물품을 보면 쌀이 크게 증가하였고 석유, 잡화, 차, 양주 등과 소비재, 사치재상품들의 이입증가가 특색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30년대 제주도 경제가 상품작물의 재배로 인해 현금수입의 증대되었고 이와 함께 도일 제주도민의 국내송금이 제주경제를 활성화시켜 소비생활을 촉진시키고 소비구성에 있어서도 소비재, 사치재, 쌀 소비 등이 증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교역의 증대 및 변화양상은 농업생산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즉 외부와의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활동, 그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증대는 다시 교역증대로 피드백되는 효과를 가져옴을 농민들이 인식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2. 일제의 식민지농업정책

일제에 의한 식민지 농업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특징지을 수 있다. 즉 토지조사사업에 이은 산미증산계획, 농촌개량사업이다. 산미증산정책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관개개선, 지목변경, 개간,간척, 시비증가, 품종개선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도입,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농업은 자연적 조건에 있어 육지부의 논농사지역과 달리 전작중심의 농사지대이다. 또한 한반도전체에서 제주도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농업정책을 그대로 제주도에 적용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식민지농업정책은 처음부터 수정되어 적용시키거나 혹은 방관적 태도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식민지 농업정책의 핵심인 산미증산계획은 크게 토지개량사업과 농사개량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토지개량사업은 관개개선, 지목변경, 개간, 간척 등이고 농사개량사업은 시비증가, 품종개량 등이 세부적 실천사항들이 있다. 이 중에서 제주도는 농사개량사업 특히 시비증가나 품종개량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은 재배기술의 보급, 품종개량, 지도포와 같은 집단지도집단 조직, 시비확대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식민지 농업정책의 실시로 인한 농업생산력 변동의 정도 문제이다. 즉 농사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생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품종개량사업으로 보아진다. 즉 식민지농업정책이 1930년대 제주도농촌의 생산력 변동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도입하여 보급, 확대시켜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육조건이 일치하여 새로 도입된 품종, 작물 그리고 그 작물들이 균수물자확보라는 일제의 필요에 의해서 관료가 보장함으로써 제주도농민의 입장에서 생산활동의 안정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생산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계자료가 일제의 관변자료가 대부분이어서 자칫 식민지 홍보 차원의 계획 나열을 보편적 사실로 과장되게 인식되어져서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한 영향이 미화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3. 제주도민의 도일

제주도의 농업생산력 변동연구에 있어 간과되기 쉬운 사항은 생산외적 요소로 여겨지는 제주도민의 渡日현상이다. 제주도민의 渡日이 제주경제와 농업생산력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즉 한가구에 한명꼴로 도일하여 이로 인해 생산의 충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남자노동력의 품귀현상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임금상승의 효과를 가져오고 노동생산성 정체, 노동력 악화 등과 같은 농업노동력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도일제주도민으로부터의 현금송금 혹은 귀향시 가지고 오는 현금이 도내현금보유량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 등과 같은 것이다. 제주도민의 도일현상은 규모의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이보다 인적구성이 노동력공급악화에 미친 영향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도일 제주도민의 구성을 보면 가장 생산력이 왕성한 20-50세 사이 남자가 가장 많고 지주 및 자작농의 도일도 많아 전도 1천1백 41호 지주가운데 4백 51호, 자작농은 전체의 55%인 9백99호

13) 도일제주도민의 계급구성 1934년 4월 현재

구분	지주	자작	자작겸소작	소작
도향호수	451	7,999	4,733	7,868

자료 : 제주우당도서관편, 전서서, p.110-119.

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이들은 초기에는 주로 휴한기에 도입하여 단기간 노동하다가 다시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휴한기와 상관없이 일본경제상황에 따라 도입하였고 설령 귀향하였다 하더라도 재도일을 위한 휴식을 핑계로 생산활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사회문제로 까지 연결되었다. 제주도민의 본격적 도입이 시작된 것은 1919년 阪神 공업지대로 모집에 응함으로 해서 비롯되었다. 1922년 남자 3천1백98명, 여자 3백5명 총 3천5백2명, 1925년 도입자는 1만5천9백6명, 1927년 1만9천2백4명, 1933년 2만9천2백8명, 급기야 1939년에는 5만명으로 전도인구의 4분의 1 즉 한가구에 한명씩 도입한 셈이었다. 이들의 도입은 노동력감소와 품귀 이로 인해 도내 농업뿐 아니라 모든 부문의 고용임금상승을 야기시켰다. 또한 당시 농가일호당 1정4단보를 1.5명-2명, 그것도 여자, 노인층이 생산을 담당하는 실정이고 보면 이로 인해서 경작지가 황폐화되고 일인당 노동생산성이 감소, 경작가능면적 축소 등 노동력악화로 인해 생산력 증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진다.¹⁵⁾ 노동력 악화의 문제가 농업생산력 증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노동의 강도가 약하고 한정된 면적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품작물로 전환하기가 용이하였고 기존의 작물에 있어서도 농업기술의 개선제약을 만회할 만한 신품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한가지 측면은 도입노동자의 현금송금으로 인한 소비를 포함한 여타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으로, 1926년 우편국을 통한 송금액이 77만4천7백84円, 1928년 1백28만7천1백40円, 1932년 68만5천1백55円, 1933년 85만7천円등이었다. 이외에 귀향시 직접 가지고 온 액수까지 합치면 상당한 것이었다. 이는 제주도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192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주도 농가의 가계구조는 식민지 시장경제로의 편입의 결과 나타난 현상 즉 생필품의 수입급증과 맥류, 백미, 현미, 백미, 외미, 만주조, 쇠미 등 곡류이입이 증가 등으로 매년 엄청난 현금부족사태가 생겨나고 노동력감소, 이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로 수입원이 줄어들고 특히 현금수입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등 농가 생활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도입 제주도민의 송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입 제주도민의 송금은 단순히 이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대표적인 변화로 소비생활 특히 쌀소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933년 제주도 이출입 무역총액은 1백 56만円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백미 16만1천8백 71円(9천2백74석), 쌀래기(米) 3만5천2백80엔(1천9백60석)이었다. 당시 도내 쌀 생산량은 2만1천8백10석(이중 수도는 1만2백34석)으로 이입미 1만1천2백34석을 합쳐 총 3만6천44석을 소비하는 것으로 전국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쌀소비량이 상위권에 속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곡중심의 생산활동에서 벗어나 더욱 더 환금작물, 상품작물의 재배로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쌀수입의 증가와

14) 상계서, pp.110-119.

함께 소맥분 10만5천엔(10만5천관) 청주 2만 2천8백80엔(2백 20석) 소주 1만 7천 8백80엔(5백90석) 맥주, 설탕 2만6천7백3엔(14만7천6백94근) 기타 일용잡화류, 직물, 화장품, 고무신, 건축재료 등의 수입이 늘어나 이 수출총액 1백10만엔을 40여만엔이나 초과하는 입초경제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¹⁵⁾ 이 부족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재삼 강조한 바와 같이 도일 제주도민의 송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제주도민의 도일로 인한 영향은 간접적이거나 경제생활을 포함한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면 일본에서의 생활경험으로 일본의 선진농법, 우량품종, 선진근로의식의 간접체험 등을 경험하여 이들이 귀향하여 농사에 재투입되었을 때 농업경영의 기본적 마인드가 개방화, 선진화 되어 제주도 농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다.¹⁶⁾

V. 맺음말

개항 이후 제주도의 농업을 사적으로 고찰함에 있어 1930년대는 1970년대와 함께 중요한 변혁기라 할 수 있다. 즉 1930년대 제주도에 상품작물의 재배가 확산되었고 품종개량등과 같은 농사개량정책이 부분적으로 뒷받침되어 제주도 농촌을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변동시킬 만한 농업생산력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 농촌의 3대 대별지역 즉 해안지역, 중간지역, 산간지역 간의 경제력 이동, 인구이동, 경관이동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물론 이 문제들은 따로 기회를 마련하여 입증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본 논문 역시 결국은 1930년대 제주도농촌경제의 변동 분석을 위한 부분적 고찰임을 말해둔다.

1930년대 제주도 농업생산력 변동의 가장 큰 특징은 누차 강조했던 바와 같이 작물재배의 변화 즉 상품작물의 재배와 기존작물들의 품종개량이라 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생산체인 농민자체의 내재적 요소도 함축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항 이전과 비교하여 생산주체자인 식민지시대 제주농민들의 생산의욕, 근로의욕, 농업경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적 판단능력 등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배양되어졌고 이러한 점들이 가시적이지는 않았지만 생산활동에 접합되어 중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종래의 제주도 농업, 농촌에는 관한 서술에서 생산주체자인 제주도농민은 수탈에 억눌린채 생존수준에 급급하여 더 이상의 잉여는 사고조차 가능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묘사되어온 점이 많다. 그러나

15) 상계서, pp.110-119.

16)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혼한 현상으로 감귤재배초기 우수품종을 가장 먼저 도입하였던 마을의 구성원들의 도일경험 혹은 그 지역출신 재일교포들의 영향, 후에 바나나 재배에 있어서도 주재배 지역 재배농민들이 일본과의 밀접한 관련에서 재배동기를 찾을 수 있는 등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고찰을 해보면 제주도 농민은 조건과 기회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진다면 잠재되었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존재임을 알수 있다. 1930년대 제주도 농촌경제는 바로 이 점을 입증해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사회의 강력한 중앙통제권력이 사라지고 새로운 통치기구로 대체된 상황에서 제주도 농민들은 이전과는 다른 상황들 즉 자의적 수탈이 사라지고 예측가능한 조세제도로 변화하였고 국가적 정통성, 이데올로기 문제를 떠나서 이전 통치권력 보다는 안정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도¹⁷⁾ 생산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그동안 내재되어 왔던 제주도 농민들의 역량이 생산활동에 투하되어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마을회, 1996, **강정향토지**.
 고덕훈, 1990, **광명약사**.
 고영기, 1997, **제주도의 벼농사**, 고대 석사학위 논문.
 남인희, 1985, **제주농업의 백년**, 태화인쇄사.
 인정식, 1940, **조선의 농업지대**, 생활사.
 입정대학일합동한국제주도학술조사단, 1988, **한국 제주도의 지역연구**.
 전라남도제주군청, 1914, **제주군세일반**.
 전라남도제주도청, 1936, **제주도세일반**.
 제주도, 1982, **제주도지 상**, 하.
 제주도, 1995, **제주록**.
 제주도청, 1937, 1939, **제주요세요람**.
 제주문화방송, 1986, **탐라록**.
 제주우당도서관 번역, 1995, **제주도의 지리적 연구**.
 제주우당도서관 번역, 1997, **제주도의 옛기록**.
 조선농회, 1930, **농가경제조사**, 전라도편.

17)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제하는 것은 식민초기의 조세부담이 정도문제를 차치하고 예측가능하였다는 점과(조세부담, 조세액의 변화 등은 일제시대 관보가 수록된〈제주도, 1995, **제주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말기에 이르러 공출, 강제징용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 인권침해 사태가 생겨났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 즉 식민지 건설시기와 안정적 유지시기에는 민심유도를 위해 의도적, 정책적으로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보편적 식민정책이다. 물론 식민지수탈을 위한 법 등을 통해 합법을 가장한 재산권침해사례도 있었다고 보아진다.

- 조선농회, 1944, 조선농업발달사, 정책편.
조선총독부, 1929, 생활상태조사,2, 제주도.
조선총독부, 1930, 조선국세조사보고, 전라남도편.
조선총독부, 국토토지농산조사보고, 전라도편.
조선총독부농상공부편, 1910, 한국수산지 제3집, 제주도.
채구석 외, 1914, 立式契約書(좌면 중문리 마을문서).
泉靖一, 1996, 제주도.
탐라문화연구소, 1995, 제주문학.